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73>

# 생각이 문제를 만들고 있을 뿐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대인의 상[大人相]입니까?”  
조주 스님은 옆 눈으로 찌러보았다.  
학승이 말했다.  
“그것은 두 단계를 뛰어서 다가간 것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에게, 초월 경계를 얻은 한가한 사내가 되는 공부(工夫)는 없어.”

問 如何是大人相 師側目視之  
云 猶是隔階趨附在  
師云 老僧無工夫 趨得者閑漢

두 단계를 밟은 것은 한 단계를 생략했다는 말이다. 선(禪)은 원래 자질구레한 설명은 생략하고 두 세 단계 넘은 뜻을 보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단계가 높은 것을 보인 것이 아니다. 조주 스님은 그저 평범한 것을 보인 것이다. 다만 사람들이 진리를 눈을 뜨지 못해서 이 말이 두 세 단계 높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대인(大人)은 부처님이나 성인과 같은 훌륭한 인격자이다. 학인은 진정한 대인의 상은 무엇이나 고 묻는 것이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장난치듯 옆 눈으로 사물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대인이다. 자, 나를 보아라. 나아말로 대인이지 않는가. 대인은 옆 눈으로 사물을 보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야” 라는 뜻을 보인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약간이라도 마음이 일어나면 곧 인간계나 천상계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념무심인데도 천상계나 인간계의 권속에 떨어질 때는 어때 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뿐만 아니라, 본분 작가에게서도 역시 너는 대답을 들을 수 없어.”

問 纔有心念 落在人天 直無心念 落在眷屬時如何  
師云 非但老僧 作家亦答你不得

여기서 작가(作家)는 본분 작가를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어째서 무(無)라했는가?’ 암무 스님이 덕산 스님 귀에 대고 했던 ‘말후구는 무엇인가?’ ‘전삼삼 후삼삼은 무슨 뜻인가?’ 이들 화두들은 모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벼랑 끝에서 해답을 얻는 것들이다. 이곳에서 해답을 얻으면 그는 일체에 대해서 통달하게 된다. 이러한 선사는 중생을 깨닫게 하는데 각종 방편과 기연을 자유자재로 쓰기 때문에 본분 작가라 한다.  
만일 약간이라도 마음이 일단 일어난다면 그는 중생이다. 그 망념 때문에 윤회를 중지하지 못하고 삼계를 윤회하게 된다. 유심(有心)이 곧 중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깨달으면 부처이다. 깨달은 순간 망념은 영원히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미묘함이다. 다만 미미한 습관은 남아있다. 이것마저 없애기 위하여 깨달은 자도 수행한다. 이것을 보림(保羅)이라고 한다. 이때에 닻은 수행은 ‘부처의 행[佛行]’을 닦는 것이지 부처가 되기 위

해서 닻은 것이 절대 아니다.  
깨달으면 본래 무심으로 돌아간다. 그런 그가 다시 윤회할 일은 없다. 깨달은 자가 윤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선사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일은 없기 때문이다.

비구니가 물었다.

“대저 시위(施爲:행위)가 있으면 모두 조박(糟粕:찌꺼기)이 되어버립니다. 청컨대 스님께서 시위에 떨어지지 않고 대답해 주십시오.”  
조주 스님은 비구니를 꾸짖으며 말했다.  
“물을 가지고 와서 솥에 붓고 푹 끓여요.”

問 凡有施爲 盡落糟粕 請師不施爲答  
師叱尼云 將水來添鼎子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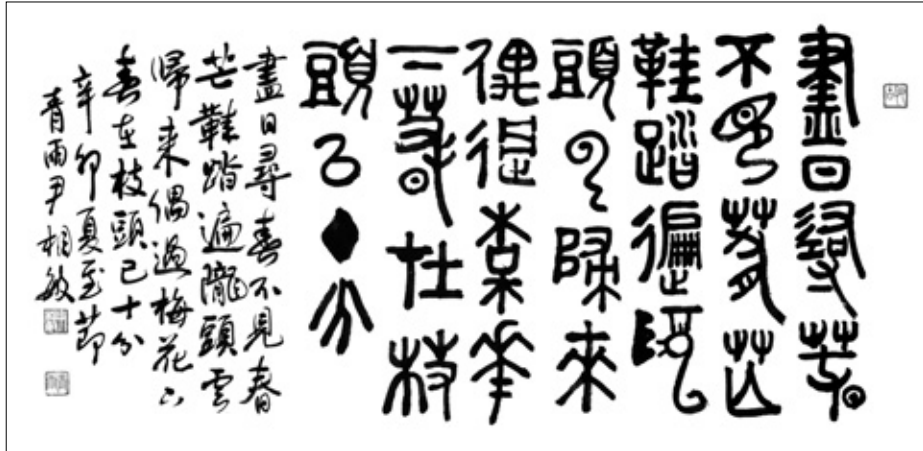
도는 말할 수 없다. 뭐라고 말로서 설명하려 하거나 행동으로 보여려 하면 벌써 쓸데없는 찌꺼기가 돼버리고 만다. 그런데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고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니 이것 참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조주 스님은 “어떤 식으로든 행동하거나 말했다 하면 벌써 찌꺼기가 된다면서 너는 날 보고 찌꺼기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냐?” 하고 야단을 치면서, “그런 찌꺼기가 있으면 너나 물을 넣고 푹 고아 먹어라” 하고 핀잔을 준 것이다.

다만 일어나는 마음만 쉬어라. 시위, 찌꺼기, 어긋남 등의 생각도 쉬어라. 깨닫고 보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 오로지 끝없이 일어나는 생각이 문제를 만들고 있을 뿐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 운상민의 서화산책 ㉔ 전시

### 봄을 찾다



\* 이 서체는 고대 한자 서체인 전서(篆書)체 중에 은시대의 금문(金文), 이른바 종정문(鐘鼎文)이다. 세기(祭器)·무기(武器)·악기(樂器) 기타에 새긴 명문(銘文)이 종정문에 속한다.

盡日尋春不見春 芒鞋遍踏隨頭雲 歸來偶過梅花下 春在枝頭已十分  
(진일심춘불견춘 망혜편답隨頭운 귀래우과매화하 춘재지두이십분)  
-송(宋) 니승(尼僧)

하루 종일 봄을 찾아 다녀도 봄을 보지 못하고 짙신이 다 닳도록 언덕 위의 구름 따라다녔네. 허탕치고 돌아와 우연히 매화나무 밑을 지나는데 봄은 이미 매화가지 위에 한껏 와 있었네.

청신두하우두혜불진  
우묘이춘과운담경의  
윤하십세매귀편춘심  
상지분지화래몽림춘  
민절

尋: 찾음  
鞋: 신혜  
遍: 두루  
踏: 밟을답  
隨: 고개 이름 통



서제가 · 동아미술상 수상

## 선어록 해제 ㉔ 한국선과 선어록 23

## 신문철요

### 신문에서 많이 읽혀온 책

조선시대 후기 경허성우(1849~1912)에 의해 범어사에서 1908년에 편찬된 <선문철요>는 상·하 2권으로 구성돼 있다. 수록된 내용을 보면 <소실육문집>에 수록돼 달마의 어록으로 간주되어 오던 <혈맥론> <관심론> <사행론> <반야심경> <오성론>을 비롯해 홍인의 <최상승론>, 황벽희운의 <완릉록> <진심법요> 몽산택이의 <범어>, 박산무이의 <참선경어>, 보조지눌의 <수심결> <진심직설> <정혜결사문> <원돈성불론> <간화결의론>, 진정전책의 <선문보장록>, 저자 불명의 <선문강요집>, 청허휴정의 <선교석> <선가귀감> 속에 수록돼 있는 <오가종풍>, 기타 부록으로 감지승찬의 <선심명>과 영가현각의 <중도가> 등이다. 이후에 출간된 판본에는 <좌선의> 및 <심우도> 등이 부록으로 수록되기도 했다.

<혈맥론>은 문답의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반드시 선지식을 참문해 심법은 중생이나 부처에 동일하게 구비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달마의 정법안장이 견성성불에 들어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관심론>은 북종의 대통신수의 저술로 간주되는 <관심론> 혹은 <과상론>으로서 참회와 예배 및 삼보에 대한 예경 등 하심을 위한 가르침이 잘 나타나 있다. <사행론>은

는데 있어 자신의 본래심에 근거해야 할 점에 가장 역점을 두어 강조한 내용이다. <정혜결사문>은 최초로 수선을 위한 결사문으로서 당시에 피폐해가던 고려불교의 정화운동의 이념을 잘 구현해주고 있는 글이다. <원돈성불론>은 원돈의 교리에 의거한 성불론인데 선교 화엄의 갈등관계를 화통하는 방식으로 드러낸 글이다.

<간화결의론>은 한국 최초의 간화선에 관한 논서로서 <간화(看話)와 결의(決疑)에 관한 논>, 혹은 <간화에 의한 의식의 결단에 관한 논>의 단 의미를 가진다. 간화는 화두의 참구이고, 결의는 화두를 참구하는 구체적인 작업으로서 의심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선문보장록>은 선교 교학의 차별의 입장에서 선의 우월성을 강조한 글이다. <선문강요집>은 임제종의 종지 가운데 특히 임제삼구에 대한 논의를 삼성장·이현화·일우설·산운편의 네 그룹으로 분류하고, 운몽종의 종지에 대해 운몽의 범어 및 기타 몇 가지 운몽종 관련 범어를 설명한 것이다. 청허휴정의 <선교석>은 청허휴정의 다른 저술인 <선교결>과 더불어 선교 교학의 대별을 주제로 선교 차별에 대한 논의이다.

‘오가종풍’은 <선가귀감>의 부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임제종·위암종·조동종·운몽종·범안종의 선종오가의 대의와 그 범백 및 간략한 교의의 대강을 들어서 언급해두고 있다. 특히 임제종만이 정통이고 기타 네 종파는 모두 방계에 속하며, 또한 조동종을 제외한 네 종파가 모두 마조도일의 법계에 속한다는 것으로 일관돼 있다.

<선문철요>에 수록된 이들 내용은 예로부터 선문에서 많이 읽혀온 것들로서 선별된 특별한 기준은 없다. 여기에 수록된 선전(禪典) 가운데 특히 달마의 어록은 서지학적인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늘날 선종의 초조로 간주되고 있는 보리달마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가 간 들어낸 진실적인 내용임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임제종지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강조되었던 황벽희운의 어록과, 해동선법의 근간으로 간주되고 있는 보조지눌의 저술 등 개인적인 선전에 속하는 것들과, 기타 선리(禪理)에 대한 집대성으로 간주되고 있는 저술들과 선교차별의 입장에서 저술되었던 내용 등으로 일관돼 있다.

<선문철요>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기존의 선전 가운데 몇몇을 선별한 것으로, 중국전술과 한국전술에 상관없이 불특정의 선방에서 손이 닿는대로 끌어다 모은 것이다. 때문에 선문에서 중요시되어 온 문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전등사서에 해당하는 문헌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참선경어>와 <선문보장록>을 제외하면 선종오가 이후에 저술된 것으로는 주로 남약과 마조의 법맥으로 계승된 임제종 계통과 관련된 깊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희규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 인천 유일의 불교복지 재가기관 안내

사회단체 지장연꽃마을 노인, 장애인 복지센터

- ★노인복지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및 무의탁 노인후원, 복지용구지원, 환경개선지원 등
- ★장애인활동보조 : 장애인분들을 수발해 드립니다. 기타 치매, 중풍,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돌보아 드립니다. 전화주시면 방문상담합니다.
-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및 자원봉사자 모집 ☎ 070)8248-0108, 032)548-0108, 010-4317-0108

### 태초의 신비,만트라(다라니)기도명상용CD출시

- \* 번뇌,갈등,병고 등, 심신이 힘들고 불안할 때 일이 꼬이고 집안이 탁할 때, 이제 고요 편안한 자세로
- ① 만트라(음)CD를 그저 듣기만 하여도
- ② 만트라(음)를 들으며 명상을 하여도
- ③ 만트라(음)를 따라서 음송하여도, 모두 놀라운 가피와 경이로운 심신의 변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 \* 만트라(음)는 번뇌, 망상을 차단하고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혀 고요하게 하며 선신이 옹호하고 소원하는 바가 자연히 성취되는 놀라운 원력과 가피가 있습니다. 이 ‘음’ 만트라는 모든 만트라(다라니, 明呪)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신성하다. \* 성월 (手印)
- \* CD주문은 반드시 이메일이나 문자로 주문받습니다. [stmn@naver.com](mailto:stmn@naver.com) / 010-4317-0108
- \* CD보시금은 만원이며, 판매수익금은 모두 노인복지사업에 쓰입니다.

소림선원 기공명상센터 관장 성월 스님 합장

## 대관음사 행사모집

1. 만50세 미만, 남자, 출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수행위주의 교육
3.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4.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5.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사생활 함.

문의 : 053-474-8228  
010-2488-8228

도심사찰 낚골 시설을 갖춘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 스님, 불자 변액연금 목돈, VUL, 의료 보험

- 1 은퇴후 120세까지 세금없이 매월 ⑥백만원이상 받는 연금이 있다면!
- 2 건강이상시(비상시) 보상받고 무상원치 된다면!
- 3 여유자금 0억이 있다면 = 「안정성 + 수익성」 = 인플레이 헷지
- 4 비과세 초스피드 0억 목돈마련 계획 전문가

(1) 공인 재무상담 전문가  
(2) 공인 Risk컨설팅 전문가  
(3) 부동산 분석 전문가 (건국대학원 수료)  
(4) 공인 변액 자산관리 컨설팅 전문가

### 무료상담 환영

\* 노후 Risk Management 강의 요청시 (5인이상, 1시간) 스님과 불자님은 무료로 강의해 드립니다.

불교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小佛子 慧峰 합장

상담전화 011-335-6389 / 02-471-2356

## 제1기 김해대학교 평생교육원 불교학과 학인모집

개강 : 2011년 9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 김해대학교 102호 강의실

과목 : 1. 범음법해학과 (교수: 민지효 스님)  
2. 불교철학과 (교수: 법장 스님)  
3. 가야역사학 (교수: 태연 스님)  
4. 다도(茶)학 (교수: 김명자 님)  
5. 가요(찬불) (교수: 이현주 님)

범음법해학과 교육내용 \* 유네스코 등재된 소리

- 일반인 : 예절법, 기도법, 참선법, 천수경, 반야심경 법성계, 칠정래, 거불, 삼귀의, 사홍서원 향수해례, 칠원사구성, 짓소리.
- 스님 : 기본과정 - 사물, 법고, 도량식, 각단예불 중급과정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요잡바라, 나비춤(도량제, 다계) 고급과정 - 종송(조석종송), 46제의식, 방생의식, 상용염반, 종사염반, 괘불이운, 종사이운

\* 위 모든 과목을 모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

- 수강료 : 매월 10만원 또는 1학기 50만원 (교재비 별도)
- 법페 문의 : 교수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 담임 교수 : 법장 스님 011-829-9120

김해대학교 평생교육원 담당자 055)320-1717  
경남 김해시 삼방동 산 77-9번지